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의 통사·의미론

시정곤* · 김건희**

기존 논의에서는 ‘-을 수 {있다/없다}’가 양태라는 전제 하에 하위의 양태 의미 유형(능력, 추측, 허가 등)을 설정했다. 그러나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은 양태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구문과 통사, 의미, 형태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이 양태 표현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은 다른 의존명사 구문과는 달리 통사적으로 이중주격 구문이며, 의미적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과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가 아니라 ‘수’의 어휘의미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가능성]만 제시된 ‘-을 수 {있다/없다}’는 구체적인 문맥 하에서만 [가능성]에서 나아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을 수 {있다/없다}’의 기본 의미는 중립적인 열린 [가능성]이며 문맥에 따라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여러 의미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양태, 가능성, 능력, ‘-을 수 {있다/없다}’, 의존명사, 이중주격 구문

1. 문제제기

이 논문의 목적은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이 과연 양태 표현인지를 검토하고 이 구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¹⁾ 특히 이

* 시정곤(KAIST 인문사회과학과)

** 김건희(서울대 언어학과)

1) 본 논문은 ‘의존명사 구문의 양태적 고찰’(한국어학 2009.08)에 대한 후속 논문이다. ‘의존명사 구문의 양태적 고찰’에서 양태성을 보이는 의존명사 구문을 포괄

구문이 가지고 있는 통사, 의미적인 특성을 고찰하고 기존의 전형적인 양태 표현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이 과연 양태 표현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양태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을 양태 의미 유형 속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 가. [철수가 부산에 가]르 수 있다.

나. [철수가 부산에 가]르 수 없다.

위의 예문에서 ‘-을 수 {있다/없다}’에 대해 김지은(1998)에서는 ‘능력, 가능성’의 양태 의미로, 박재연(2003)에서는 ‘인식 양태, 행위 양태(능력)’로 파악했으며, 임동훈(2003), 안주호(2006)에서는 ‘인식 양태(추측), 의무 양태(허가), 동적 양태(능력)’을 포착하였다. 염제상(1999)은 ‘가능성(근원)’ 외에도 ‘인식’, ‘산발’, ‘양보’와 같은 유형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는 ‘-을 수 {있다/없다}’를 양태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외국 이론에 기대어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을 [능력], [무능력]이라는 대표적인 우연적 형식의 ‘양태’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능력], [무능력]이라

적으로 논의하면서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의 특이점을 발견하고 초고(2009년 한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문)에서도 후속 논의를 언급했다.

기존 논의에서는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을 양태 표현으로 간주했지만 본 논의에서는 다른 양태 의존명사 구문과 달리 예외적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의의는 다른 의존명사 구문과 ‘-을 수 {있다/없다}’의 통사, 의미적 차이점을 대비적으로 고찰하여 전체 양태 의존명사 구문의 특성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존명사 구문의 양태적 고찰’에 대한 첫 번째 후속 논문으로 부득이하게 전형적인 양태성을 보이는 의존명사 구문인 ‘관형형 어미 의존명사 {이다/하다/같다/싫다}’류 구문이 아닌 ‘-을 수 {있다/없다}’ 구문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다. ‘-을 수 {있다/없다}’를 양태 의존명사 구문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선결하여야 전체 양태 의존명사 구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확보하고 추후에도 의존명사 구문의 양태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는 의미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의미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든다.²⁾

더욱이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은 양태를 나타내는 다른 구문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을 수 {있다/없다}’ 구문에는 ‘수’ 다음에 조사 {이/가}의 삽입이 가능하다.

- (2) 가. *그가 떠날 {듯이 했다/ 모양이 이겠다/ 것이 같다}.
나. 그는 떠날 수가 있다.

둘째, 박재연(2003), 임동훈(2003)³⁾에서 지적했듯이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은 부정의 범위에서도 일반적인 양태 구문과 차이를 보인다.

- (3) 가. 나는 다시 오지 않겠다. → 안 오겠다.
나. [[NEG[나는 다시 오]]겠]
(4) 가. 그는 올 듯하지 않다. → 안 올 듯하다.
나. [[NEG[그는 오]]듯하]
(5) 가. 그는 올 수 있지 않다. → 올 수 없다.
나. [[NEG[[그는 오] 수 있]]]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양태 어미 ‘겠’이나 의존명사 양태소 ‘듯’이 포함된 구문에서는 명제만 부정되고 양태소는 부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양태의미 [추측]은 부정의 범위 밖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러

2) 익명의 심사자는 ‘-을 수 있다/없다’의 [능력, 무능력]은 화자의 판단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양태의 정의에 관련하여 논란이 많지만 본고에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러한 정의의 범위에서 [능력, 무능력]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화자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추후 다른 지면을 통하여 더 정교하게 진행할 것이다.

3) 임동훈(2003: 146)에서도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문법화한 것이므로 주관적 양태일수록 부정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음이 일반적이는데 우연적 형식은 어미와 달리 아직 문법화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양태 부정어 되는 것도 제시하면서 그 양태성의 정도에서 일률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을 수 {있다/없다}’ 구문에서는 이들이 부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능력]의 의미가 [무능력]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마치 이 구문이 명제 밖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명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추측을 가늠케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은 통사, 의미적인 측면에서 양태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구문과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이 양태 표현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을 수 {있다/없다}’의 문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의존명사+{이다/하다}/{같다/싫다}류와 대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양태 의존명사 구문 전체를 균형 있게 조망하여 ‘-을 수 {있다/없다}’를 양태 의존명사 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제기한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의 양태 의미 유형의 분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을 수 {있다/없다}’의 기저의미로 [가능성]을 설정할 것이다. 그리고 기저의미에서 어떻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을 수 {있다/없다}’ 의미와 관련하여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을 수 {있다/없다}’의 대표적인 의미가 [능력]인지 [가능성]인지, 그리고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은 ‘인칭’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남은 문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2. ‘-을 수 {있다/없다}’의 문법적 특성

2.1.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은 양태 구문인가?

앞서 지적한 대로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은 양태 의존명사 구문인 ‘선행어미+의존명사+{이다/하다}’, ‘선행어미+의존명사+{같다/싫다}’ 등과 격조사 개입이나 부정의 적용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을 수 {있다/없다}’가 과연 양태 표현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기서는 이들 외에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차이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서술어의 생략 여부도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다/하다} 구문은 서술어가 단순한 기능동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되어도 양태의 의미는 남아 있으나 {있다/없다} 구문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6)가. 나는 그저 여기 앉아 있을 따름이지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 나는 그저 여기 앉아 있을 따름,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다.

(7)가. *하는 수

나. *너 그러다 죽는 수

다. *수혜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 볼 수도

라.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8)가.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나. 그럴 수도 저럴 수도...

(9)가.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없다}.

나. 그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없다}.

(7가, 나, 다)는 비문이 되며 혹시 (7라)와 같은 문장이 생략의 여운을 남기며 허용된다고 해도 서술어 ‘있다’가 오느냐, ‘없다’가 오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9가)처럼 ‘있다’, ‘없다’를 명시해 주어야만 문장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 수 있다. 물론 전후 문맥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다면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있지만, (6)의 {이다/하다}류처럼 의미 역할이 전혀 없는 것과 달리 ‘있다’ 대신 ‘없다’를 쓰면 당연히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⁴⁾

4) 단, ‘수’ 뒤에 ‘밖에’가 오는 경우에는 ‘없다’는 생략될 수도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밖에’가 부정어와 호응하는 부정극어류이므로 ‘있다’가 아닌 ‘없다’가 당연히 가정되기 때문이다.

(i)가. 영화가 떠났다고 말할 수밖에.

두 번째로 양태부사와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양태부사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부사어로서 나타낸다.

- | | |
|--------------------------|----------|
| (10) 가. 철수는 틀림없이 내일 떠난다. | [확신][단정] |
| 나. 철수는 아마도 내일 떠난다. | [추측] |

위의 예에서처럼 양태부사 ‘틀림없이’와 ‘아마도’는 ‘철수가 내일 떠나는’ 행위에 대해 화자의 확신이나 추측의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면 위의 예에서 양태부사 ‘틀림없이, 아마도’는 어떤 요소와 호응하는가? 아마도 명제를 제외한 어미 ‘ㄴ다’와 호응한다고 봐야 한다. 이때 어미 ‘ㄴ다’가 양태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 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양태의미를 더욱 강도 높게 표현하기 위해 양태부사와 양태어미가 함께 호응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미 ‘ㄴ다’보다는 다른 양태어미가 왔을 때 양태의미가 더 심화되기 때문이다.

- | | |
|--------------------------------|----------|
| (11) 가. 철수는 틀림없이 내일 떠나지/떠나고말고. | [확신][단정] |
| 나. 철수는 아마도 내일 떠나겠다/떠날걸. | [추측] |

위의 예에서 양태부사는 양태어미 ‘-지, -고말고, -겠-, -을걸’ 등과 어울려 명제에 대한 자의 태도를 더욱 명확하게 나타낸다. 그렇다면 ‘-을 수 {있다/없다}’ 구문에서는 어떤지를 비교해 보자.

- (12) {나/너/영희}는 아마도 이 시간에 밖에 나갈 수 있다. [추측]

위의 예를 보면 양태부사 ‘아마도’가 ‘-을 수 있다’와 호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이때 ‘-을 수 있다’는 양태부사 ‘아마도’와 함께 명제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더욱 강화하는 양태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13)과 같이 양태부사 ‘아마도’를 삭제해도 [추측]의 의미는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정도 성립이 가능하다.

나. 영희가 떠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13) {나/너/영희}는 이 시간에 밖에 나갈 수 있다.

위의 예에서 [추측]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을 수 있다’라면 이를 양태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12), (13)에서 ‘-을 수 있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의 예를 보자.

(14) {나/너/영희}는 아마도 이 시간에 밖에 나갈 수 있을걸.

(14)처럼 양태어미 ‘-을걸’을 삽입해 보면 양태부사 ‘아마도’는 ‘-을 수 있다’와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만약 양태부사가 ‘-을 수 있다’와 양태적으로 호응하여 화자의 태도를 더욱 증강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15)의 예가 비문이 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15) *{나/너/영희}는 아마도 이 시간에 밖에 나갈 수 있고말고.

(15)에서 문장이 비문이 되는 이유는 양태부사 ‘아마도’와 호응하는 양태어미 ‘-고말고’가 서로 의미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2)에서는 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었을까? 물론 이때 ‘-을 수 있다’도 양태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양태의미가 중복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설명해야 하고,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통사적 차이들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그리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을 수 있다’의 의미가 양태와 잘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본고에서는 ‘-을 수 있다’의 기저의미로 [가능성]을 상정한다.⁵⁾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의 의미가 구체적인 맥락에서만 화자의 태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렇게 가정할 때 앞에서 언급했던 통사적 특징들도 자연스

5) 이에 대해서는 3장, 4장에서 자세히 먼저 논의할 것이다.

럽게 설명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을 수 있다’ 구문은 기존에 양태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구문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 ‘-을 수 있다’ 구문이 과연 양태구문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2.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은 이중주격 구문이다.

여기서는 ‘-을 수 있다’ 구문에서 서술어 ‘{있다/없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의존명사 다음에 나타나는 {이다/하다}가 생략 가능한 기능동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같다/싫다}가 의존명사의 양태 의미를 더 돋들리게 하는 양태 서술어라면⁶⁾ 의존명사 다음에 나타나는 서술어 {있다/없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16) 가. [오늘은 팔이 좀 쭈시는] [듯]하다.

나. [영수가 오늘 울] [것][같다]

다. [철수가] [[내일 부산에 가][ㄴ 수]] [있다]

6) 시정곤·김건희(2009: 199)에서는 {같다/싫다} 구문이 {이다/하다} 구문과 다른 점은 {같다/싫다}라는 서술어 자체에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래와 같이 의존명사 ‘것’이 ‘이다’ 없이 홀로 쓰이면 다른 의존명사와는 구별되는 [단정]의 의미가 있고 ‘것이다’처럼 ‘것’이 ‘이다’와 결합해도 [단정]의 의미가 그대로 보존되지만 의존명사 ‘것’이 서술어(보조용언) 양태의 ‘같다’와 결합하면 ‘것’의 [단정]에 비해 ‘같다’의 [추측]의 의미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의미유형의 양태 의존명사와 양태 서술어(보조용언)가 나란히 오면 양태 서술어(보조용언)의 의미유형이 돌들려 나타난다.

(i) 가. 그는 떠날 것.

[단정]

나. 그는 떠날 것 이다. → 그는 떠날 것 같다.

[단정]

[추측]

다. 그는 떠날 듯 하다. → 그는 떠날 듯 싶다.

[추측]

[추측]

‘듯하다’, ‘것 같다’는 관형절에 나타난 명제와 관련되지만 ‘-을 수 있다’에서 ‘있다’는 [철수가]_{NP}와 관형절을 동반한 [---수]_{NP}의 논항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을 수 {있다/없다}’가 의존명사 ‘수’를 핵심 양태소로 하는 양태 의존명사 구문이라면 서술어가 생략될 수도 있지만 {있다/없다}는 생략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생략되는 경우는 문맥상 {있다}, {없다}를 복원해야만 문장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다. 둘째, {이다/하다}/{같다/싫다}와 결합하는 다른 양태 의존명사 구문과 달리 ‘-을 수 {있다/없다}’는 의존명사가 주격조사와 결합한다는 점이다. 보조사 ‘도, 만’ 등은 {있다/없다}, {이다/하다}, {같다/싫다}와 결합되기도 하지만 주격조사 ‘이, 가’는 유독 {있다/없다}와만 결합한다.

(17) 가. 오늘은 팔이 좀 쭈시는 듯(도/이) 하다.

나. 영수가 오늘 올 것(만/이) 같다.

다. 철수가 내일 부산에 갈 수(도/가)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볼 때 본고에서는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을 2개의 논항을 취하는 이중주격 구문으로 제안하고자 한다.⁷⁾ 이것은 서술어 ‘있다’의 의미에 기댄 것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다’는 형용사로서 ‘이유, 근거, 구실, 가능성’ 따위와 같은 단어와 함께 쓰여 이유나 가능성 따위로 성립된 상태’를 뜻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본고는 여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7) 물론 다른 {있다/없다}류 의존명사 구문도 주격조사와 결합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을 수 있다/없다’와 ‘-을 나위/리/여지/턱 있다/없다’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첫째, 소수이지만 ‘-을 수 있다/없다’는 ‘하는 수 없다’와 같이 ‘-은’ 관형사형 어미도 선행할 수 있다. 둘째, ‘-을 수 있다/없다’는 ‘있다’, ‘없다’가 대등하게 사용되지만 ‘-을 나위/리/여지/턱 있다/없다’의 ‘있다’ 형태는 부정의 반어적 의문문일 때만 나타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을 나위/리/여지/턱 없다’로 제시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 (18) 가. 아이의 투정은 이유가 있었다.
 나. 그 소문은 근거가 있는 거냐?
 다. 이런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위의 문장에서 ‘있다’는 ‘NP₁-이 NP₂-가 있다’와 같이 2항 서술어이며, 각각 주격을 동반하는 이중주격문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본고는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환원할 수 있다.

- (19) 가. [철수가 부산에 가]ㄴ 수 있다.
 나. [철수가] [[PRO 부산에 가]ㄴ 가능성]이 있다.

(19가)의 ‘수’는 다양하게 해석된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는 ‘가능성’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9가)의 구조는 다시 (19나)로 환원할 수 있겠다. 이때 ‘-을 가능성이 {있다/없다}’ 구문은 ‘-을 가능성이 {많다/적다/높다/낮다}’와 같은 형용사 구문과 일맥상통한다.

- (20) 가. 철수가 부산에 갈 가능성이 {있다/많다/높다}.
 나. 철수가 부산에 갈 가능성이 {없다/적다/낮다}.

그렇다면 위의 (20나)의 구조에서 ‘-을 가능성이 {있다/없다/많다/적다}’와 같은 문장을 과연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로 볼 수 있는가? 오히려 서술어 ‘있다’가 취하는 2항 구문, ‘NP₁-이 NP₂-가 있다’ 전체가 명제가 아닌가를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21) 가. 철수가 부산에 갈 수 있다.
 나. 철수가 부산에 갈 수 있을 {것같다/듯하다}.

위의 예에서 과연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

까? ‘-을 수 있다’일까 아니면 ‘-을 {것같다/듯하다}’일까? 만약 ‘-을 수 있다’를 양태로 본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고 (21나)에서처럼 ‘-을 {것같다/듯하다}’와의 양태 표현 중복 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을 것같다/듯하다’가 나타내는 것이라 간주한다. 따라서 이때 양태 표현은 ‘-을 것같다/듯하다’가 말고 ‘-을 수 있다’는 두 개의 논항과 함께 명제를 만드는 서술어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을 양태 표현이 아닌 2항 술어 구문으로 간주한다면 앞서 지적했던 통사적 차이들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이 다른 양태 구문과 달리 양태 어미 ‘겠’이 추가로 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구문이 양태 표현이 아니고 명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을 수 {있다/없다}’ 구문에서 ‘수’ 다음에 조사 {이/가}의 삽입이 가능한 이유도 서술어 ‘{있다/없다}’가 2개의 논항을 취하는 이중주격 구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을 수 {있다/없다}’ 구문에서 부정의 범위에서도 일반적인 양태 구문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을 수 {있다/없다}’까지를 명제의 범위로 설정할 경우, 이들이 부정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3. ‘-을 수 {있다/없다}’의 의미적 특성

3.1. ‘-을 수 {있다/없다}’의 의미 유형에 관한 선행 연구

‘-을 수 있다’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22) 가. 그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가능성] (여행을 떠날지도 몰라서)
나. 그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능력]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 다. 그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자질] (여행광이어서)
 라. 그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자격] (과제를 훌륭히 마쳤으므로)
 마. 그는 (이틀만) 여행을 떠날 수 있다. [허가] (이틀만 휴가를 얻어서)

(22)에서처럼 ‘-을 수 있다’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가능성, 능력, 자질, 자격, 허가’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때 이 다양한 의미를 과연 양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첫 번째 의문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위의 다양한 의미를 여러 가지 양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3) 기존 논의의 양태 의미 유형

	양태 의미 유형
김지은(1998)	(허용), 능력, 가능성
염재상(1999)	가능성(근원), 인식론적 의미(인식), 산발적 의미(산발) 양보적 의미(양보)
박재연(2003)	인식 양태, 행위 양태(능력)
임동훈(2003)	능력, 허락, 인식적 가능성
안주호(2006)	인식 양태(예측, 추측, 가능성, 확실성)하 의무 양태(능력, 의지, 의무, 허가)

김지은(1998)에서는 ‘-을 수 있다’를 주어중심 양태용언 2류로 구별하여 ‘의무, 허용,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고 특히 ‘허용’, ‘능력’의 ‘-을 수 있다’를 구별하고 있다.⁸⁾ 박재연(2003)에서는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로 나누어 고찰했고, 임동훈(2003), 안주호(2006)에서는 Palmer(2001: 22)에서 정의한 인식 양태(추측), 의무 양태(허가), 동적 양태(능력)와 같은 양태 유형을 포착하였다. 또한 ‘-을 수 있다’에 대한 양태 의미유형을 가장 자세히 살펴본 염재상(1999)에서는 ‘양상’의 특징적인 의미현상을 ‘중의성’으로 보고 ‘-을 수 있다’를 위와 같이 네 의미로

8) 그러나 이 논의에서는 ‘있다’를 개별적인 양태 용언으로 다루는 부분에서는 ‘능력, 가능성’만을 대비적으로 고찰하고 있어 ‘-을 수 있다’와 ‘있다’의 의미 유형을 구별시켰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을 수 없다’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고 ‘-을 수 있다’만 다루고 있다.

나누고 있다.⁹⁾

그렇다면 선행연구에서 ‘-을 수 {있다/없다}’를 굳이 양태 표현으로 봐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찾기 어렵지만 아마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화자가 판단’했다는 점 때문이라 생각한다. 즉 ‘명제의 확실성(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은 특히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한 양태의 기본 논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¹⁰⁾ 그러나 이러한 견해도 역시 어디까지를 화자의 판단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화자의 판단’이 양태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명쾌하게 가름하기는 어렵다. 의미적으로 ‘-을 수 {있다/없다}’가 양태의 정의인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고는 의문을 갖고 있다. ‘-을 수 {있다/없다}’는 선행 관형절에 나타나는 명제의 가능성 여부를 나타내지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을 가능성이 {있다/없다/많다/적다}’와 같은 문장을 과연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처럼 명제에 대한 ‘가능성, 능력, 자질, 자격’ 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의 문제를 양태 범주에 모두 포함시킨다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다음과 같은 문장도 모두 양태 표현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24) 가. [그는 여행을 떠나]ㄴ 상황이 아니다.

나. [그는 여행을 떠나]ㄴ 시간이 없다.

9) 염재상(1999)에서는 특히 ‘가능성(근원)’의 의미에는 ‘가능성, 능력, 허가’의 세 하위 의미가 존재하지만 이는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의미에 수렴된다고 보았다. ‘능력’이나 ‘허가’의 의미는 한 사건의 실현을 가능케 해주는 일종의 원인으로 보고, 이는 결국 어떤 사건을 실현케 해주는 ‘가능성’의 의미로 보았다. 안주호(2006: 211)에서는 염재상(1999)의 ‘근원’은 의무양태에, ‘인식, 산발, 양보’는 인식양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10) ‘가능성’과 ‘필수성’은 Lyons(1977: 787)에서 주장한 양태의 두 가지 기본 논리(logic)이다.

다. [그는 여행을 떠나]ㄴ 준비를 갖추었다.

라. [그는 여행을 떠나]ㄴ 마음을 먹었다.

위의 예들은 모두 ‘그가 여행을 떠나다’라는 명제에 대해 화자의 판단이 이어지는 문장이다. 만약 ‘-을 수 있다’를 화자의 판단이라는 개념으로 양태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위의 (24)의 문장들도 모두 양태 범주에 포함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를 양태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화자의 판단을 양태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오히려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진정한 양태 표현이 ‘-을 수 있다’ 구문 뒤에 다시 붙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양태 부사가 삽입되었을 때 ‘-을 수 있다’의 의미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25) 가. {나/너/영희}는 이 시간에 밖에 나갈 수 있다.

[가능성, 능력, 자질, 자격]

나. {나/너/영희}는 아마도 이 시간에 밖에 나갈 수 있다.

[가능성, 능력, 자질, 자격]-[추측]

다. {나/너/영희}는 이 시간에 아마도 밖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추측]

위의 예에서 ‘-을 수 있다’ 구문에서는 양태 부사 ‘아마도’가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거나 ‘-을 수 있다’의 의미는 여전히 다양한 의미를 유지한다. 우리의 가정은 ‘-을 수 있다’가 ‘-을 것 같다/듯하다’와 같이 양태 표현이라면 ‘아마도’가 사용되었을 때 [추측]의 의미만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가 사용되어도 여전히 [가능성, 능력, 자질, 자격] 등의 다양한 의미가 가능하다. 만약 (25나)에서 [추측]의 의미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가능성]+[추측], [능력]+[추측] 등과 같이 ‘-을 수 있다’의 의미에 [추측]이 첨가되는 모습이지, [가능성, 능력, 자질, 자격]의 의미가 사라지고 [추측]이 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태 표현은 ‘-을 수 있다’를 포함한 명제 밖에 놓인 것이라고 가정한다. (25다)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5다)에서는 ‘-을

수 있다’ 구문에서도 ‘아마도’가 ‘-을 것이다’와 함께 쓰이면서 한층 강화된 [추측]의 양태 의미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적인 특징도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을 양태로 볼 수 없다는 증거라 할 만하다.

본 논문에서는 ‘-을 수 {있다/없다}’의 의미를 양태로 보지 않고, 의존명사 ‘수’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26) 그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

(27) 가. 그는 여행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가능성] (여행을 떠날지도 몰라서)

나. 그는 여행을 떠날 능력이 있다. [능력]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다. 그는 여행을 떠날 자질이 있다. [자질] (여행광이어서)

라. 그는 여행을 떠날 자격이 있다. [자격] (과제를 훌륭히 마쳤으므로)

마. 그는 (이틀만) 여행을 떠날 자격이 있다. [자격(허가)](이틀만 휴가를 얻어서)

위의 예에서 의존명사 ‘수’는 문맥에 따라 ‘가능성, 능력, 자질, 자격’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쓰이며, 이것이 ‘-을 수 있다’ 구문의 의미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능성, 능력, 자질, 자격’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쓰이는 의존명사 ‘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하나는 ‘수’를 ‘수₁, 수₂, 수₃, 수₄’ 등으로 별도의 어휘로 쪼개어 등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수’의 기저 의미를 설정하고 이 기저 의미가 문맥에 따라 적절한 의미로 달라진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명확한 처리 방식이기는 하지만 ‘수’를 몇 개까지 어떻게 쪼개야 할지가 어렵고 또 ‘수’가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양상을 적절하게 포착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번째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2. ‘-을 수 {있다/없다}’의 기저의미 : [가능성]

이 논문에서는 ‘-을 수 {있다/없다}’의 기저 의미를 불확정 ‘가능성’이라고 가정한다. 즉 의존명사 ‘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가능성]이라는 의미자질을 기저에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저의미가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면 좀더 구체적인 의미로 확정된다는 생각이다.

‘-을 수 {있다/없다}’ 구문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는 ‘수’이다. 안정아(2005), 안주호(2006)에서도 공통적으로 ‘수’를 ‘방법’을 나타내는 자립명사에서 ‘능력, 가능성’을 뜻하는 의존명사로 문법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¹¹⁾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의존명사 ‘수’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뜻을 이룰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의 ‘수’가 ‘가능성’¹²⁾으로 치환될 수 있으며 {있다/없다}¹³⁾와 결합한 ‘수 {있다/없다}’는 ‘가능성의 유무’를 나타낸다고 보았다.¹⁴⁾

11) 안정아(2005: 129)에서는 ‘수’가 다른 보조사와 결합하는 것을 보면 아직 어휘화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안주호(2006: 227)에서는 의존명사에서 다시 ‘-리 수 없-’과 같은 부정형식으로 주어의 능력이나 허용을 나타내는 의무양태로 문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리 수 있-’과 같은 긍정형식의 의무양태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져 화자가 명제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인식양태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12) 엄녀(2008: 308-309)는 중국어에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양태조동사는 한국어보다 훨씬 많은데 ‘能, 能够, 可以, 會, 可能, 得(de)’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했다. 이런 양태조동사들은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으나 미세한 의미 차이로 구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태조동사들은 저자가 작성한 한국어의 우연적 구성과 중국어의 양태 조동사의 의미론적 대응 관계 표(2008: 307)에서 ‘인식양태-추측, 가능성, 판단/의무양태-능력, 허가’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논의의 끝부분(2008: 314)에서 중국어에서 ‘능(能)’은 어떤 일에 능숙함을 나타내는 데, 이러한 의미는 한국어의 ‘-(으)리 수 있다’에는 없다고 주장을 하여 한국어, 중국어 양태 조동사 비교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13) 김상대(1991)에서는 ‘있다’의 의미를 ‘존재, 처함, 소유, 속성’으로 분류하고 특히 ‘수’와 결합한 ‘수 있다’는 ‘속성’으로 보았다.

14) ‘능력’이 아닌 ‘가능성’으로 설정한 이유는 앞으로의 논의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

그렇다면 왜 ‘수’의 기저의미를 ‘능력’이 아닌 ‘가능성’으로 상정해야 하는가? 먼저 ‘가능성’의 의미가 ‘능력’의 의미보다 더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8) 가. [철수가 부산에 가]ㄴ 수 있다.

나. ?[철수가 부산에 가]ㄴ 능력이 있다.

다. [철수가 부산에 가]ㄴ 가능성이 있다.

(29) 가. [이 사업은 실패하]ㄴ 수 있다.

나. ?[이 사업은 실패하]ㄴ 능력이 있다.

다. [이 사업은 실패하]ㄴ 가능성 있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수’는 ‘능력’보다는 ‘가능성’으로 환원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능력’보다는 ‘가능성’이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을 ‘수’의 기저의미로 잡은 또 다른 근거로 ‘-ㄴ 수 있다’ 구문을 들 수 있다.

(30) 가. 그러다가 너는 죽는 수가 있다.

나. 그러다가 실패하는 수도 있다.

‘수 있다’ 구문은 일반적으로 ‘-을 수 있다’로 사용되지만 위의 예처럼 ‘-ㄴ 수 있다’로 쓰이기도 한다. 이것은 ‘수 있다’ 구문이 처음에는 선행하는 관형형어미를 자유롭게 취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의 예에서 ‘-ㄴ 수 있다’의 의미는 [가능성]으로 상정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수 있다’ 구문의 기본 의미가 [가능성]일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수’의 기저의미를 [가능성]으로 상정한다.

본고에서 가정하는 불확정 ‘가능성’은 구체적인 문맥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표출된다.

며 특히 4.1장에서 자세히 고찰하였다.

(31) 그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

(32) 가. 그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여행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0가능성] → [+가능성]

나. 그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능력]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0가능성] → [+능력]

다. 그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자질] (여행광이어서)

[0가능성] → [+자질]

라. 그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자격] (과제를 훌륭히 마쳤으므로)

[0가능성] → [+자격]

마. 그는 이틀만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자격(허가)](이틀만 휴가를 얻어서)

[0가능성] → [+자격]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기저의미([가능성])에 대한 개념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Ehrman(1966)과 Coates(1983)에서도 융합의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 있고, 염재상(1999)에서도 이러한 불확정성의 개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과의 차이점은 [가능성]을 양태로 보느냐의 여부이다. 본고에서는 [가능성]을 양태로 보지 않고 의존명사의 어휘적 의미로 보는 반면,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모두 [가능성]을 양태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다.¹⁵⁾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hrman(1966: 12-13)은 양태는 연속체가 존재하는 불확정성을 지닌다고 하였고 이러한 불확정성은 형용사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oates(1983: 14-18)도 정도성(gradience), 중의성(ambiguity), 융합(merger) 등의 3가지 불확정성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의하였

15)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한 대로 [가능성]을 양태로 보지 않는다면, [가능성]의 개념을 양태론자인 Ehrman(1966)과 Coates(1983)에 기대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비록 입장은 다르지만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이 ‘수’의 어휘적, 문맥적 의미 관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여 이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이다. 즉, ‘수’가 구체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불확정성’의 개념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¹⁶⁾ 염재상(2003: 258)에서는 실제 문장 안에서 ‘-을 수 {있다/없다}’의 의미해석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실현되지 않아 네 의미가 하나의 단일한 의미 안에서 수렴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면서 의미 사이의 경계가 없어져버린 불확정성의 상태라고 주장하였다.¹⁷⁾

이와 관련하여 Palmer(1995)의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Palmer(1995: 7)에서는 ‘Jones can speak German.’과 같은 문장에서 ‘can’이 과연 von Wright(1951: 28)가 주장한 대로 동적 양태인지에 대해 반문하면서 인식양태나 의무양태는 화자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동적 양태는 문장 주어의 능력이나 의지를 나타내므로 엄밀히 말하면 양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⁸⁾ 또한 ‘can’이 동적 양태라 하더라도¹⁹⁾ 다음과

-
- 16) 정도성(gradience)은 핵심부와 주변부로 나뉘 볼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can’의 경우 [능력]이 핵심부이며 [가능성]이 주변부라고 주장하였다. 중의성(ambiguity)은 의미들이 같은 비중으로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must’가 인식론적 양태와 의무론적 양태를 모두 나타내는 것을 예로 들었다. 특히 융합(merger)과 같은 경우는 ‘ought to’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i) Newcastle Brown is a jolly good beer.

Is it?

Well it ought to be at that price. Coates(1983:17)

이러한 Coates(1983: 14-18)의 연구는 하나의 양태 표현이 나타내는 다양한 양태 의미를 체계적으로 유형 분류한 논의로 ‘-을 수 {있다/없다}’는 정도성(gradience), 중의성(ambiguity)이라기보다는 융합(merger)의 불확정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을 수 {있다/없다}’는 어떤 양태 의미 유형으로도 다 해석되지만 후행하는 다른 양태 표현의 의미 유형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융합의 불확정성을 나타내며 다른 양태 표현이 후행하지 못하는 영어의 ‘ought to’와는 차이를 보인다.

- 17) 또한 염재상(2003: 258)에서는 ‘-을 수 있다’는 각 의미범주들이 상호배타적이거나 절대적 단절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계 부분에서 서로 겹쳐지고 혼합적이며 그래서 의미적으로 연속적인 불확정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로 그 기저 의미를 가정하였다. 이 ‘기저의미’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상보적 전환’(혹은 ‘양방향적 가능성’)으로 하나의 명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명제의 부정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열린 가능성’은 양태의 기본 논리 중 하나인 ‘가능성’에 귀결된다.
- 18) 영어 표현 ‘can’이 양태인가에 대한 의문은 국내 논문에서도 이어진다. 먼저 이 선웅(2001: 325)에서 영어에서 능력의 ‘can’은 의무 양태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화자의 정신적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동훈

같이 주위 문맥이 더 구체적으로 주어저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33) ...buying the most substantial property you can buy.(S.8.2a.18)

I mean, you can travel from Belgium to France with much less palaver¹ than you can travel from the North to the South of Ireland.(S.2.8a.5)

It is really a matter of how quickly can we get the surveyor to move.(S.8.1a.10)

위의 예문은 'can'이 비교급이나 최상급에 나타나는 부사나 형용사와 함께 쓰이거나 사건이 가능한 환경이 명확히 지시되었을 때 'can'의 의미가 좀더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특히 가능한 환경이 명확히 지시되어야 더 적당한 표현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Palmer(2001: 70)에서는 동적 양태는 주어의 실제 능력보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나 혹은 불가능하냐는 일반적인 환경의 관점에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가능성'만 제시된 '-을 수 {있다/없다}'가 양태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고 '수 있다'가 다른 구체적인 문맥 하에서만 '-을 수 {있다/없다}'의 가능성에서 나아가 화자의 판단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것을 관찰하였다. 즉, '수'라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간 '-을 수 {있다/없다}'는 그야말로 문맥에 따라 정황적인 해

(2003: 133)에서는 주관적 양태와 객관적 양태를 언급하면서 각주에서 주관성이 개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can'을 양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임동훈(2003: 143)에서는 단순히 희망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우나 행위자 개인의 능력,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는 양태로 보기 어려우며 동일한 형식이 여러 용법을 보이고 그 중 일부가 양태 표현으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 용법 모두를 양태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을 수 있다' 구문의 의미가 양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를 볼 수 있다.

19) Palmer(1995: 84)에서는 동적 양태를 [중립(정황적인)Neutral(circumstantial)], [주어지향(subject oriented)]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사건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며 후자는 주어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석이 가능하여 그 자체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을 수 {있다/없다}’의 기본 의미는 ‘중립적인 열린 가능성’이며 문맥에 따라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여러 의미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4. ‘-을 수 {있다/없다}’의 의미 해석에 따른 기존 쟁점 검토

4.1. [능력인가 [가능성인가]

기존 논의에서 [능력]은 ‘-을 수 {있다/없다}’의 대표적인 양태 의미 유형으로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을 수 {있다/없다}’의 대표적인 의미가 [능력]인가? 본고는 앞에서 [가능성]이 ‘-을 수 {있다/없다}’의 기저의미라고 상정한 바 있으므로, [능력]과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을 수 {있다/없다}’를 [능력]으로 간주한 대표적인 논의로 임동훈(2003), 박재연(2003), 안주호(2006)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임동훈(2003: 148)에서는 인칭에 따라 의미 유형이 달라지는데 1인칭은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34) 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그러나 ‘-을 수 {있다/없다}’는 이러한 [능력]의 의미 해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라도 문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5) 가. 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증거] (깁스를 풀었기 때문에)
 나. 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능력] (스키 탈 용돈을 모았기 때문에)
 다. 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추측] (영희도 스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라. 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허가] (엄마가 허락해서)

주어의 ‘능력’이라는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임동훈(2008: 228)에서는 동적 양태의 ‘능력’에서 주어의 능력을 주장한 바 있다.

(36) 철수는 100미터를 15초 안에 뛸 수 있다.

먼저 위의 임동훈(2008: 228)을 검토해 보자. (36)에서는 ‘-을 수 있다’가 주어(철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처럼 명제의 시제가 과거로 바뀌면 양태 의미 유형은 [능력]을 전혀 나타낼 수 없다.

(37) 가. 철수는 100미터를 15초 안에 뛸 수 있다. [능력]
나. 철수는 100미터를 15초 안에 뛰었을 수 있다. [능력?]

명제와 관련된 과거 사실의 실현 즉 과거 시제 형태소인 ‘-었-’이 양태의 관점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의미를 (37나)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37가)를 열린 가능성의 [가능성]으로 해석하면 의미 역할이 영[0]인 과거 관형형어미인 ‘-었을-’이 결합되어도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39)에서 ‘-을 것이다’가 과거 관형형어미 ‘-었을-’과 결합해도 [추측]을 유지하는 것처럼 (38)에서도 [가능성]-[가능성]으로 일관된 해석을 할 수 있다.

(38) 가. 철수는 100미터를 15초 안에 뛸 수 있다. [가능성]
나. 철수는 100미터를 15초 안에 뛰었을 수 있다. [가능성]
(39) 가. 철수는 100미터를 15초 안에 뛸 것이다. [추측]
나. 철수는 100미터를 15초 안에 뛰었을 것이다. [추측]

안주호(2006: 212)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내적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0) 수연이는 배영을 할 수 있다. [안주호(2006: 212)]

(40)에서는 주어(수연)의 내적 능력을 언급하고 있다. 그 근거로 안주호(2006: 212)에서는 ‘X가 Y에게 Z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기제를 이용하여 ‘수연이는 수연이가 배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로 Z하는 행위의 주체는 X이고 X와 Y는 동일하므로($X=Y$) 내적인 [능력]을 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의 주장도 구체적인 정황 아래에서 ‘-을 수 있다’가 ‘내적 능력’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지 ‘-을 수 있다’의 일반적인 의미가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문맥을 가정하면 이 문장도 매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주어의 내적인 [능력]으로 대별되는 것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Quirk *et al*(1985: 219-21)은 사건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나타내는 내적(intrinsic) 양태(허가, 의무, 의지)와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판단을 나타내는 외적(extrinsic) 양태(가능성/능력, 필수성, 예측)를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에서 ‘가능성/능력’은 모두 외적 양태의 범주에 든다. 주어의 능력은 가능성과 함께 오히려 외부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양태적 관점에서 ‘가능성/능력’은 모두 동등하게 외부의 화자가 판단하는 ‘외적 양태’인 것이다. 임동훈(2008: 228)은 [능력]을 내적인 능력과 외적인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지만²⁰⁾ 양태의 관점에서 [능력]은 외부에서 화자가 판단하는 것이며, 모두 명제의 실현 [가능

20) 임동훈(2008: 228)에서는 동적 양태의 능력이 단순히 유관 개체의 물리적, 정신적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주어인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i) 가. 철수는 100미터를 15초 안에 뛸 수 있다.

나.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철수는 도망갈 수 있다.

위에서 (가)의 ‘-ㄴ 수 있-’은 철수의 능력을 나타내지만 (나)의 ‘-ㄴ 수 있-’은 상황에 의해 주어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성]으로 수렴될 수 있다. 이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문장들이 진정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다른 아닌 ‘가능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능성’은 ‘능력’, ‘자격’, ‘자질’, ‘허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능력’으로 한정하면 설명되지 않는 문장의 의미 해석을 올바르게 이끌어 낼 수 있다.

4.2. 인칭과 ‘-을 수 (있다/없다)’의 의미 해석

임동훈(2003: 143)에서는 인칭에 따라 ‘능력, 허락, 가능성’으로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의 양태 의미 유형이 아예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41)가. 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나. {너는, 철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위 논의에서는 1인칭이 오느냐, 2, 3인칭이 오느냐에 따라 ‘(41가)=능력’, ‘(41나)=허락’, ‘(41다)=인식적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²¹⁾ 그러나 이러한 ‘의미 유형’ 분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각 문장의

21) 박재연(2009: 11)에서는 이러한 임동훈(2003: 143)의 논의에 대하여 두 가지의 문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을 수 있-’의 ‘능력’의 문법적 의미는 양태 아닌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이를 양태 논의에서 제외한다면 이들이 표현하는 문법적인 의미를 무엇으로 기술하여야 할지 알 수 없다. 둘째 3장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임동훈(2008)에서는 ‘-어야 하-’가 화자의 수행적 조건 부과를 나타내는지 주어에게 존재하는 객관적인 조건을 기술하는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문맥이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논리를 ‘-을 수 있-’의 의미에 적용하면 ‘-을 수 있-’의 어디까지는 양태로 보느냐 하는 것도 분명한 선을 그을 수가 없다.’ 이러한 박재연(2009: 11)의 의문에 대해 본고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째 의문에서 ‘-을 수 있-’을 단순히 ‘능력’으로 한정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둘째 의문에서는 박재연(2006)의 화, 청자 지향적 양태(우언적 형식)과 주어 지향적 양태(어미 형식)을 인칭에 따라 구분한 것과 관련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4.2 마지막 부분에서 논거 한 것처럼 좀더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의미 유형은 단순히 하나의 의미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면 (41)의 양태 의미 유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 (42) 가. 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엄마가 이제야 허락했으니까)
 나. {너는, 철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잊어버렸던 스키 폴대를 찾았으니까)
 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북쪽의 최고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42가)를 단순히 주어의 ‘능력’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허락’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단순) 가능성’이 되기도 한다. (42나)의 경우도 ‘허락’이 아니라 ‘스키 폴대를 찾은 사실에 기반한’ 주어의 ‘자격’ 등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곧 명제에 대한 정보의 출처와 관련된 증거 양태로도 연관시킬 수 있다. (42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거’와도 연관시킬 수 있다.

또한 1인칭에서도 모든 양태 의미 유형을 다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칭이 다른 다음 문장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의미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

- (43) 가. 나/너/철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능력] (돈을 많이 벌어서)
 나. 나/너/철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추측] (스키를 한번도 안 탔지만 내가 추측하기에 모든 운동을 잘하니까)
 다. 나/너/철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허가] (엄마가 어제 허락해줘서)
 라. 나/너/철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증거] (잃어버린 스키 폴대를 찾았으니까)

인칭에 따른 차이는 (44)에서 알 수 있듯이, 화용적인 맥락의 수행성과 관련이 있지 이러한 인칭의 차이가 ‘-을 수 {있다/없다}’의 양태 의미 유형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 (44) 가. 나는 이쯤에서 허가서를 내줄 수 있다.

[화자가 제안이나 의견을 나타냄]

나. 너는 이쯤에서 허가서를 내줄 수 있다.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를 제한함]

다. 그는 이쯤에서 허가서를 내줄 수 있다.

[화자가 다른 이(그들)을 대신해서 발화함]

결국 이러한 인칭을 기준으로 한 양태 의미 유형 분류는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을 수 {있다/없다}’는 명시적인 양태 의미 유형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5. 결 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성을 양태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통사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은 양태를 나타내는 다른 의존명사 구문과는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주장했다. 첫째, ‘-을 수 {있다/없다}’ 구문에는 ‘수’ 다음에 조사 {이/가}의 삽입이 가능하고, 둘째, 박재연(2003), 임동훈(2003)에서 지적했듯이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은 부정의 범위에서도 일반적인 양태 구문과 차이를 보인다. 셋째 ‘의존명사+{있다/없다}’ 구문은 서술어가 단순한 기능동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되어도 양태의 의미는 남아있으나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은 그렇지 않다. 넷째, 양태부사와의 적용 범위 및 호응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양태소들과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은 통사적으로 이중주격 구문을 나타내는 일반 서술 구문이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과 태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양태 구문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의미론적 특성과 관련해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을 수 {있다/없다}’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는 양태가 아니라, 의

존명사 ‘수’가 나타내는 어휘 의미(능력, 자격, 자질, 허가 등)으로 보았다. 둘째, ‘수’의 기저의미를 ‘가능성’으로 상정하여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도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가능성’은 ‘능력’, ‘자격’, ‘자질’, ‘허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능력’으로 한정하면 설명되지 않는 문장의 의미 해석을 올바르게 이끌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칭과 ‘-을 수 {있다/없다}’의 의미는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고에서는 ‘-을 수 {있다/없다}’의 기저의미로 [가능성]을 상정했는데, 이 기저의미에서 다양한 의미로 파생되는 과정을 좀더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으나 지면 관계상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그리고 ‘-을 수 {있다/없다}’가 보이는 다양한 의미의 속성들도 좀더 체계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한 ‘-을 수 {있다/없다}’와 관련하여 이와 동일한 유형을 보이는 ‘-을 나위/리/여지/턱 {있다/없다}’에 대해 고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을 수 {있다/없다}’와 이들 구문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관찰하여 이들 구문도 양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해 본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 김건희(2007), ‘N 같다’, ‘N같다’에 대한 연구 -합성어로서 사전에 등재해야 하는 ‘N같다’ 판별을 중심으로, 《국어학》 50, 국어학회, 148-180.
- 김건희(2008), ‘싶다’ 구문에 대하여-의존명사 결합형과 종결어미 결합형을 중심으로-, 《한글》 280, 한글학회, 129-164.
- 김건희(2009), ‘밖에’의 의미와 형태 -문법화 현상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04집, 한국어문학회, 103-140.
- 김상대(1991), ‘있다’의 의미에 대하여, 《인문논총》 제2집, 5-31.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박재연(2003), 한국어와 영어의 양태 표현에 대한 대조적 고찰: 부정과 관련한 문

- 법 현상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199-222.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 태학사.
- 박재연(2009), '주어 지향적 양태'와 관련한 몇 문제, 《제50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어학회, 1-13.
- 시정곤(2001), 명사성 불구어근의 형태, 통사론적 연구, 《한국어학》 14, 한국어학회, 205-234.
- 시정곤(2008), 준자립어와 준접미어에 대하여, 《한국중원언어학회 봄학술대회 발표집》, 105-114.
- 시정곤·김건희(2009), 의존명사 구문의 양태적 고찰,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177-212.
- 안정아(2005), 의존명사 '수'와 '줄'의 의미 연구, 《어문논집》 52, 121-145.
- 안주호(2006), '-르 수 있-' 구성의 특징과 문법화,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학회, 207-232.
- 엄녀(2008), 한,중 양태 표현의 대조적 고찰 -한국어 "-(으)르 수 있다"와 중국어 "능(能)"의 대조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6, 이중언어학회, 299-320.
- 염재상(1999), 한국어 양상표현 '-르 수 있다'의 중의성과 의미해석들, 《불어불문학연구》 38, 517-546.
- 염재상(2003), '-(으)르 수 있다'의 기저의미 - [상보적 전환]-, 《인문학논총》 3, 243-260.
- 이선웅(2001),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2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17-339.
- 임동훈(2003),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 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127-153.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서울: 탑출판사.
- Coates, Jennifer.(1983),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London: Croom Helm.
- Ehrman, M.(1966), *The meaning of the modals in present-day American English*, The Hague: Mouton.
- Lyons, J.(1977), *Semantics I,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fred Krug, Frank Palmer (eds.)(2003), *Modality in Contemporary English*, Mouton de Gruyter.

- Palmer, F. R.(1979/1990/1995), *Modality and the English Modals*, 3d ed, London: Longman.
- Palmer, F. R.(1986/2001), *Mood and Modality*. 2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rk, Randolph, Greenbaum, Sidney, Leech, Geoffrey and Svartvik, Jan.(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von Wright, E. H.(1951), *An essay in modal logic*, Amsterdam: North Holland.

시정곤(KAIST 인문사회과학과)

chungkon@kaist.ac.kr

010-2248-5837

[305-701]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김건희(서울대 언어학과)

kenee2@snu.ac.kr

010-3421-0630

[305-761]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208동 604호

투고 일자: 2009. 9. 30.

심사 일자: 2009. 11. 20.

게재 확정 일자: 2009. 11. 30.